



# APEC 기술사의 域內 상호인정에 대한 동향(II)

## On the Status of APEC Professional Engineer Mutual Recognition(II)



許 嬭\*  
Huh, Ginn

\* 화약류관리기술사, 미국기술사(토목), 한국기술사봉사단장,  
FEISEAP(동남아태평양공학회연합) 부회장,  
APEC. P. E. 한국심사등록위원회 한국수석대표.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는 호주가 현재까지는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Anglo saxon 系로서 英語國을 감안할 때 경제 기술국으로서 우리 나라도 일본과 손잡고 非英語國을 끌어들여 主導國 역할을 한다면 상호인정의 문제부터 우리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3. 한국의 대응방안

#### 1) APEC 지역에서의 상호인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技術士의 相互認定協定の 締結에 있어서 한국으로서 고려해야할 몇 가지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1) 利點, 不利益한 점을 비교한 다음 가능한 한 이점이 많은 협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 (2) 협정은 技術士에 국한된 單獨問題가 아니라 WTO/GATS의 일부로서 반드시 협정 체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 (3) FEANI, NAFTA 협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계적인 협정에 들어가기 전 우리의 유리한 APEC 지역부터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우선 한국과 타국간의 2국간 협정부 터 締結한다.
- (4) 협정의 체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인정조건의 하나인 공학교육의 品質保證, 인정하는 技術士의 기술수준, 언어 및 技術規律의 이해도에 대한 要求水準 등이다.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해서 그간 우리 나라는 회의참가를 게을리 하였으나 이제부터라도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한국 기술사제도의 운용도 일본,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 맞추어 보완해야할 것이다.
- (2) 國內의 의견을 통일하여 한국에 합리적인 案을 가져야한다.
- (3) 隣接 여러 나라와 의견을 교환
- (4) 今後 各種 國際的 會合에 發言力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선정하여 가능한 동일인이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전문화해야한다.

#### 2) 相互認定 協定체결의 利點과 不利益

상호인정시 이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 (1) 한국 기술사의 해외활동이 용이하다.
- (2) 외국의 優秀한 기술도입이 가능하다.
- (3) 기술, 또는 技術資料의 확대와 선택을 할 수 있다.
- (4) 한국의 기술사, Consultant 업계의 선의의 경쟁을 가져온다. 반대로 불리한 점으

로는 한국의 컨설턴트 시장이 줄어들 수 있다. 物資의 무역에서는 개발국이 장벽을 설치코자 하는데 반하여 기술사는 선진국이 장벽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APEC HRD에서 제안하는 技術上 水準은 개발국에는 많은 기술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 기술사에 비하여 給與水準이 비교적 낮은 관계로 선진국은 상호인정으로 Consultants 業界에 다소의 피해가 우려될 것이다.

### 3) 今後 우리의 갈길과 상호인정에 대한 認識

상호 인정문제에 대한 會議에 불참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의 주장할 안건은 可及的 他代表들과 孤立된 주장이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 타국의 주장들이 通하여 밀려날 수도 있다.

언어에 대해서는 영어의 Anglo-saxon系의 國家, 多様な 歐洲 여러 나라에 비하면 漢字나라, 중국, 일본, 한국으로 분류된다. 우리 主張을 貫徹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중국과 손잡고 협동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FEISEAP 會社에는 참가하고 있으나 WFEO 또는 APEC Engineer Project 회합에는 참가가 별로 없었던 관계로 낮은 감은 있으나 隣接國家들과 먼저 손잡고 기술사의 상호인정 협정에 적극성을 기함은 물론 WTO/GATS의 분쟁처리의 課題도 슬기롭게 對應하는것도 중요하다.

### 4) 工學教育의 품질보증제도

Anglo-saxon 系의 나라에서는 워싱턴 협정에 인정했던 학부교육의 상호 인정의 전제로서 學部교육의 제3자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APEC

Engineer에서는 학부교육의 수준 자체는 그리 중요치 않은 방향으로 검토됨으로 학부교육의 제3자 평가는 당분간 염려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이는 議論시 한국 교육 제도가 일본과 동일함으로 多數의 會員國家들이 동조했기 때문에 제3자 평가는 免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으로 NAFTA, Euro Engineer와의 상호인정때는 문제가 될 것으로 豫想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 나라 교육수준이 일본 다음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學部教育을 透明化하고 外部로부터 교육상황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 5) 상호 인정하는 기술사의 기술수준

호주가 주장하는 “經驗을 쌓은 기술사의 수준”은 국경을 넘어 직무를 시행하는 기술사의 수준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경력 4년 정도의 실무경험밖에 없는 기술사라면 상호인정이 발효되며 해외에서 일하게되면 먼저 개발국에서 급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사는 단순 노동자에 가까우므로 국경을 넘어서까지 일하는 가치가 있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더욱이 선진공업국의 기술면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예컨대 어느 정도 국가에서 기술사가 부족하며 수준 낮은 기술사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WTO/GATS 문제라기 보다 그 나라의 특유한 경우로서 어디까지나 쌍방간의 협정 체결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APEC 加入國 전체가 인정하는 상호인정의 기술사의 수준이라면 워싱턴 협정 加入國이 SanDiago에서 합의한 정도의 수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APEC 加入國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支持를 받을까 염려되는 바이다.



〈표 1〉 Eurling 국가별 취득자 수 (1996년 1월)

국가명	Eurling 취득자 수(명)
오스트리아	51
벨기에	201
키프로스	2
체코	n/a
덴마크	201
오스트리아	n/a
핀란드	507
프랑스	2040
독일	1837
그리스	128
헝가리	320
아이슬란드	10
이탈리아	744
이탈리아	n/a
룩셈부르크	9
몰타	38
네덜란드	383
노르웨이	140
폴란드	48
포르투갈	1
루마니아	n/a
슬로바키아	n/a
슬로베니아	n/a
스페인	1236
스웨덴	237
스위스	240
영국	11546
27 개국	19919

자료 : Alan Burden('98) JSCE Vol. 83. 34쪽

### 6) 수입국의 언어와 技術規律에 대한 要求

동남아와 같은 多言語 지역에서의 언어요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술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란 대단한 것이다.

태국어, Indonesia語, Vietnam語, Myanma語, 中國語 등을 이해하는 우리 나라 기술사가 몇 명 있을까? 따라서 技術士會에서 世界의 공통어인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규율에 있어서는 이론과 경험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어서 優秀한 기술사라면 규율자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몰라도 설명을 들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技術規律의 이

해에 대한 요구는 없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7) 韓國技術士制度 運營의 整合化

기술사의 수준, 기술사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은 나라마다 큰 차이는 있으나 우리의 제도를 국제화에 맞게 정합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사는 「원칙적으로 고등교육을 마치고 공학적 判斷을 隨伴하는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로 정의되어 있다. 기술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미국은 技術士補(Engineering in Training) 즉 기초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른 후 기술사 밑에서만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은 후 기술사 본시험을 합격함으로써 기술사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표 2〉 국가별 기술사 자격취득자 수 비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	태국
유자격자 수 (천명)	15.2	35.6	641.0	296.0	120.6	3.2	3.5	20.0
인구(천명)	44,606	125,510	263,810	58,330	58,110	2,890	21,500	60,370
유자격자의 비율 (인구 천명당 사람수)	0.34	0.28	2.4	5.1	2.1	1.1	0.16	0.33

자료 : 石井弓夫(1998). JSCE. Vol. 83. 31쪽

현재 한국에서는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목전에 두고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한국의 기술사 수가 적은 것을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기술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미국은 약 40%, 영국은 약 5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약 1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기술사 시험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락자 중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기술사에 비해 손색이 없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험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탈락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술사의 국제통용을 앞두고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한편 우리 나라 기술사 합격률은 일본 15%에 비해 낮은 약 12%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쉽게 하여 기술사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기술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우리 나라 기술사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으로 첫째, 시험수준의 향상 둘째, 점검방법의 개선을 지적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술사의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기술사의 질적 하락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기술사의 국제적 상호인정을 앞두고 이미 제시된 APEC Engineer의 자격요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나라 기술사 자격시험의 개선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미국의 기술사 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면(기술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나라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시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음), 현재의 기술사 능력 보다 한 단계 상위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격을 병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4. 맺는 말

WTO/GATS/HRD 중에서 기술사의 상호인정 움직임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기술한 북미 및 歐洲地域 貿易圈 협정이 存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는 일차적으로 APEC Engineer 상호인정을 체결하는 것이 장차 세계

적인 협정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선택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亞細亞지역은 北으로부터 南에 이르는 美大陸 또는 歐洲地域과는 여러 가지 조건이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亞細亞諸國은 보다 더 효과적인 相互協定 締結로 WTO/GATS의 협정에 충실하여 NAFTA FEANI로 이어지는 제3의 Group으로서 가능성 있는 APEC에 노력하는 길이 가장 賢明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는 호주가 현재까지는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Anglo saxon系로서 英語國을 감안할 때 경제 기술국으로서 우리 나라도 일본과 손잡고 非英語國을 끌어들여 主導國 역할을 한다면 상호인정의 문제부터 우리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APEC 지역에서의 협정이 끝나면 이어져 세계적 협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科學技術立國을 標榜하는 우리 나라가 ISO 9000작성에 우리 나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듣고 있다. 우리 나라가 FEISEAP을 일찍부터 참가하고 있으나 WFEO 및 APEC Engineer Project 등에는 참가여부를 비롯해서 참가했더라도 필요한 발언도 하지 못하는 등 소홀히 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參加費도 대부분 參加者 자비로 충당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再考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금후 각종 국제적 회합에는 국익을 위주로 먼저 몇 개를 선정하고 다음은 발언력이 강하고 國際情報에 밝은 인재를 선정한 다음 가능한 한 동일인을 계속적으로 派遣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이다.

(원고 접수일 1999. 7. 1)